

정재호展

김미진(세오갤러리 디렉터)

정재호의 전시는 회화의 요소를 해체시켜 기호로서 공간을 점령해 놓았다. 그의 회화 화면에서 등장하는 점, 선, 면은 내면의 감성과 형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역사와 사회적 형태인 기호(알파벳, 한글), 도형, 지도, 현대의 광고 이미지(맥도날드, 코카콜라), 인터넷 언어(이모티콘)들이다. 갤러리의 작은 사각 공간은 화려한 인공의 색채 테이프로 빠르게 붙여 나간 기호들이 만들어 낸 작품으로 마치 컴퓨터 안의 시뮬레이션 공간에 들어온 듯하다.

정재호는 이미 만들어지고 규정된 재료를 빠른 직감과 감각을 이용해 연결시켜 공간을 점령해 나갔다. 갤러리 벽면에 직접 작업하는 월페인팅과 평소 작업실 벽면에 붙여 그려온 종이 작업, 중첩된 이미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투명 아크릴판 위에 이미지를 붙이고 또 몇 겹으로 겹쳐 만들어 낸 소품은 끝없이 펼쳐지는 카오스의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정재호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서구에서 출발한 분석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마치 캘리포니아 작가들이 화려하면서도 자유 분방한 색채와 형태를 구사해 내며 새로운 회화를 그려 내는 것처럼 그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수학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정재호는 회화가 말하는 재현의 의미를 사물의 출현과 모태 그리고 사라짐으로 부정한다. 그리고 동시에 카오스인 세계 전체를 회화로써 재현해 내고자 한다. 여기서 재현은 원래 의미를 전복하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사물의 의미와 표현으로 생산된 기호를 사용해 보이지 않는 세계, 화가의 내면적 감정을 그려 낸다. 우리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은 가시화하고 규명한다고 볼 수 있지만 슈퍼리더에 의해 조작된 정보로 더 많은 허위와 음모로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인류가 발전하면 할수록 수많은 기호가 생산될 것이며 그 순간부터 진실과 허위, 실재와 가상의 구별은 모호해지며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투명한 스펙트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재호는 우리 세계의 카오스를 동양의 도나 명상적 표현방법이 아니라 기호로써 분석하면서 재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그려 내는, 서구적, 과학적 방법론을 구사해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재능을 가진 작가라고 본다.